

신문을 열배 더 잘 이용하는 방법

金 乾 治

〈석유협회 홍보이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신문이다. 신문이 없는 생활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신문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착되어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체육 등 다양한 새로운 사실들이 신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신문은 우리의 관심사에 대한 중요한 정보원이 되고 있다.

신문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신문은 다른 미디어보다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업무에 도움이 된다, 정보의 양이 많다, 정보를 여러 각도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쇼핑에 참고가 된다, 판단·의견에 참고가 된다, 신뢰가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은 이와 같은 장점 이외에도 경제성·간편성·기록성이라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기록성은 활자 미디어로서의 신문을 전파·영상 미디어와 확연히 구별시키는 특성이다. 신문의 이런 기록성은 정보의 체계적 정리·축적을 가능케 한다. TV는 한번 보고 들으면 그만이지만 신문은 필요에 따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볼 수 있으며 스크랩 등을 통해 축적할 수도 있다. 정보의 체계적인 정리·축적 여부가 정보력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할 때 신문이 가지는 기록성의 의미는 엄청난 것이다. TV, 문자다중방송등의 등장으로 기록성이 신문만의 유일한 특성은 아니게 되었으나 신문 지면 자체가 체계적으로 분류된 것이라는 점에서 신문의 기록성이 갖는 뛰어난 장점은 계속될 것이다.

신문은 현대인에게 정보의 바다를 헤쳐나가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주로 글을 쓰는 일에 종사하다 보니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하나의 취



미요 버릇이 되었다. 신문이나 잡지를 보다가 그냥보고 스킨기에는 가까운 기사를 발견할 때마다 이것을 스크랩하기 시작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스크랩 그 자체가 나에게 커다란 즐거움이 되어 버렸고 생활의 일부가 되어 버렸다. 나의 하루의 일과는 오전 7시 사무실에 도착하여 조간신문을 훑어보고 주요 정보나 자료를 스크랩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냥 스킨기 쉬운 작은 기사 하나라도 나에게서는 소중한 스크랩의 표적이 된다.

의식주와 신문

현대는 정보홍수 시대라고 말해진다. 사회구조의 고도화·다변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현대인에게 요구되는 정보의 양은 그만큼 많아진다.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모두들 현대가 고도정보화 시대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대부분은 정보라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보라는데 너무 전문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여 무관심한 사람도 있다.

정보는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고도의 기술·지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이 있다. 이 가운데 현대인, 비지니스맨에게 중요한 것은 사회현실의 변화와

움직임을 알려주는 정보들이다. 그런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흡수함으로써 사회의 빠른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적 공간적 제약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경우, 주변의 생활경험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대중매체의 힘을 빌려야만 한다. 그리고 현대인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거의 대부분이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신문 TV 라디오등을 끊임없이 보고 듣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습관적으로, 그리고 감성적인 흥미로 이 미디어를 대할 뿐, 정보를 적극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정보의 흐름이 빠르면 빠를수록 적극적으로 정보를 흡수하는 사람과 수동적인 사람의 차이가 커질 것이다. 적극적인 사람이 정보의 물살을 타고 목적지에 빨리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수동적인 사람은 정보홍수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덕일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게 정보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길인가. 막상 적극적인 의욕을 가진다 해도 시간 여유가 없어 업무가 나지 않는다. 물론 수많은 정보를 순식간에 흡수하는 「비법」은 없을 것이다. 또 모든 사람이 만물박사처럼 모든 정보에 정통할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섭취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길은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할수 있다. 사회변화의 일상적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해 주는 신문을 요령껏 읽는게 그것이다.

정보의 길잡이 신문

신문이 현대인에게 정보의 바다를 헤쳐나가는 훌륭한 길잡이가 될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신문이 하루 하루의 생생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비지니스맨이 주체적인 정보의 요리사가 되어야 한다고 할 때 중요한 요소는 「정보의 생생함」 「정보의 용도」 등이다. 그런 점에서 신문은 다른 어떤 미디어보다도 유용하다. 잡지와 서적은 심층성은 앞서지만 하루 단위로 새로운 정보를 실어보내는 신문의 생생함에 비교할 수 없다. 오히려 잡지·서적의 아이디어가 상당부분 신문에서 나온다고 할수 있을 정도다. TV의 경우 속보성은 있지만

그날의 정보를 신문만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처럼 중요한 신문을 읽지 않은 비지니스맨은 사회적응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신문을 읽더라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정보력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수십만, 수백만명이 매일 같은 신문을 보지만 신문정보를 정복, 자신의 성을 쌓아가는 사람은 흔치 않다. 매일 신문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검색해서 충분히 섭취하고 축적해 놓는 것이야말로 신문정보의 1급 요리사가 되는 지름길이라 할수 있다.

신문은 하루 하루의 생생한 정보, 즉 변화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사회현실의 압축판이라 할수 있다. 신문은 또 사람들의 의식과 생활패턴의 변화를 전함으로써 사회흐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측을 가능케 한다. 이같은 바탕에서 신문은 읽는 사람의 구체적인 관심과 의욕 여하에 따라 그들에게 각종 아이디어를 신문을 통해 얻어내는 것도 가능하다.

신문스크랩과 개인정보시스템

정보의 중요성이 급격하게 증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자료와 정보를 정리하는 일이 이제 더 이상 도서관 사서나 자료정보실 요원들만의 업무가 아니게 되었다. 정보가 날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고 정보활용의 효율성에 따라 기업간의 성패가 가려지고 개인간의 능력격차가 심해지는 사회일수록 각종 자료와 정보의 체계적 정리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를 무시할 경우 경쟁사회의 논리인 약육강식에 따라 풍부한 정보를 가진 조직과 정보 없는 조직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정보 없는 조직은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고 따라서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사회에서 열등한 지위에 서게 되거나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게 된다.

신문활용의 관건은 스크랩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적 이슈나 테마를 조사, 연구하는 사람들은 신문기사 스크랩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조사기관이나 연구단체 종사자, 혹은 전문연구자들은 조직이나 개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정리활동을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매일매일 신문을 자르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 보관하는 일은 매우 귀찮은 일이다. 그러나 신문스크랩을 자신의 정보자료원(Information pool)으로 만든다는 것은 유익한 일이다. 잘 정리된 신문자료 모음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구실을 톡톡히 해준다. 체계적으로 정리된 신문스크랩은 각종 자료의 체계적 출처가 될 뿐만 아니라 특정분야의 기획안과 아이디어 제공원으로도 손색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에게 꼭 필요한 신문정보를 빨리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은 하루 아침에 붙지 않는다. 꼭 필요한 정보를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시에 수집하여 이를 최대로 활용하는 기술을 몸에 익히기 까지는 다른 지적 기술과 마찬가지로 꾸준한 반복과 훈련이 필요하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옛말은 스크랩 요령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시사한다. 아무리 좋은 정보와 자료를 수집해 놓았다고 하여도 그것들을 자신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기 좋게 정돈하며, 재가공하지 않으면 별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은 커녕 오히려 공간과 시간만을 잡아먹는 부담스런 정보공룡으로 변할지도 모른다. 이런 상태를 막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보요구와 목표에 적합한 자료만을 엄선하여 수집하고, 이를 활용에 적합한 형태로 질서있게 정리해야 한다.

신문을 개인정보시스템 구축의 도구로 활용하려면 정보정리의 기본을 몸에 익혀야 한다. 일반적인 자료분류방식으로는 도서관에서의 도서분류와 관공서, 회사에서의 서류분류방식이 있다. 그런데 개인의 사업적 요구나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지는 개인정보시스템의 경우에는 자기의 정보요구와 정보수집 목표가 이러한 자료, 정보분류의 기준을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준거가 된다.

고도의 정보감도로 수집된 신문자료와 정보를 향후 정세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조만간 정보력에서 다른 경쟁자를 능가할 수 있다. 수집된 신문자료와 정보를 개인이나 조직 차원에서 내재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일은 정보시스템 구축의 기반이 된다. 신문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만든 정

보시스템은 현대 정보사회의 파고를 헤쳐나가는 나룻배가 될 것이다.

신문스크랩의 노하우

넘쳐흐르는 신문정보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가치있는 정보」와 「무가치한 정보」를 판별하는 기준을 과연 객관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무가치한 정보가 어떤 사람에게는 천만금의 돈을 주고도 얻지 못할 귀중한 정보로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기 자신의 관심이 무엇이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정보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정보활동의 수준과 범위는 엄청나게 달라진다.

신문스크랩의 기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관심영역을 명확히 한다.

효율적인 정보수집은 「어떤 정보를 모을 것인가」라는 관심영역의 설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우선 자신의 관심영역을 하나의 아이টে으로 정리해본다. 이렇게 모아진 아이টে를 관련성이 높은 것끼리 분류해 좀더 넓은 영역의 범주를 설정하고 이 범주에 대해 제목(중항목)을 붙인다. 대략 이 중항목을 중심으로 스크랩한 것을 분류한다.

■보는 즉시 잘라둔다.

스크랩의 핵심은 「보는 즉시 잘라둔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오려두기 어려운 경우에도 필요한 정보라는 생각이 들면 그 자리에서 체크해 둔다. 「시간이 나면 하지」식의 순간적인 게으름은 스크랩의 최대의 적이다. 나중에 그 기사를 찾으려면 대단한 시간과 정열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하루에 한번은 반드시 스크랩작업을 하는 습관을 몸에 붙이는 것이 중요하다.

■출전을 명기한다.

오려낸 기사에는 최소한 신문이나 잡지명, 발행연월일을 적어둔다. 자료를 활용할 때 출처의 표기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자세한 문외가 필요할 경우 기본적인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개인적 스크랩이라면 신문이나 잡지명은 약호화해서 표시해도 무방하다.

■ 스크랩과 파일링방법

오려낸 기사를 스크랩하여 정리 보관 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첫째, 스크랩북 방식. 이 방식은 자료의 내용에 따라 세부적인 형태로 자료를 분류하기가 용이하지만 시일이 지남에 따라 부피가 대단히 커진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또한 일단 스크랩에 정리 보관되면 특정부분만을 따로 분리하여 활용하거나 시일이 지나 자료의 사용 시한이나 활용도가 떨어진 부분만을 폐기하기가 곤란하다는 단점을 갖는다.

둘째, 정형화된 규격형식. 이 방식은 정형화된 양식지를 사용해 스크랩하는 방법으로 낱장으로 규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재분류하기가 편리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 방식은 기업 내부에서 신문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보관 활용하는데 가장 적합한 형태이다.

셋째, 크리어포켓 방식. 이 방식은 신문 기사를 투명한 비닐용지 밑에 보관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이는 효과를 갖고 있으며 적은 양의 기사를 짧은 시간동안 보관하는데 용이하다.

이밖에 종이봉투나 작은 상자를 이용해 단기적으로 보관하는 방법이 있다. 효율적인 스크랩방식은

단기 보관방식과 장기 보관방식을 잘 연결하여 사용하는데 달려 있다. 1주일 이내의 짧은 기간중에 모아지는 자료는 종이봉투나 상자에 임시 보관하다가 이후 특정 시점에 시간을 갖고 모아진 자료를 재분류하여 중장기 보관법인 스크랩북 방식이나 정형화된 규격형식의 스크랩방식으로 넘어가면 효율적인 스크랩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스크랩의 감칠맛

스크랩에는 많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신문을 꼼꼼히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또 수석 채집가가 깊은 산속이나 냇가의 돌밭에서 좋은 돌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듯이 관심분야에 대한 안목도 키워야 한다. 그리고 스크랩할 가치가 있어 보이는 기사는 뒤로 미루지 말고 그때 그때 오려서 모아 둔다.

사람은 누구나 관심사가 있다. 그것이 정치든 경제든 과학이든 문화든 문제는 그 관심사를 얼마나 부지런히 수집하고 정리하여 생활화하느냐에 따라 그가 갖고 있는 관심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

■ 해외소식 ■

美 셀러리맨들에 “탈정장” 바람

남성복업체 不況 번져 30대의 젊은층서 주도

正裝이 불문을처럼 되어 왔던 미국 셀러리맨들 사이에 탈정장 바람이 일고 있다.

정장의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탈정장에 앞장서고 있는 셀러리맨들은 30대의 젊은 층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미국의 유명 시장조사 전문업체인 MRCA社에 따르면 올해들어 7월말까지 미국에서 팔린 남성용 정장은 전년동기 대비 12%나 줄어 들었다고. 이밖에 넥타이·와이셔츠등도 매출이 크게 떨어졌는데 이같은 경향은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사회 전

반에 번지는 탈정장 바람이 가장 큰 이유라고 이 회사는 밝혔다. 미국의 대표적인 남성용 정장 브랜드인 하트 세프너&막스의 경우 지난해 총 6천2백만달러(약 4백74억원)의 적자를 내고 미국내 65개 점포와 7개의 공장문을 닫았으며 무려 40%에 가까운 직원들을 감원 했었다. 자유스러운 의상을 입기 좋아하는 미국 셀러리맨들의 취향이 바뀌지 않는한 남성 의류계의 불황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것 같다는 것이 업계의 한결같은 견해다.

(중앙경제)